

근대적 교원양성제도의 변천과 사범대학의 설립

우용제(禹龍濟)* · 안홍선(安洪善)**

논문 요약

우리의 교원양성교육 역사는 지난해로 한국의 근대적 사범교육 110주년을 기념하였고, 올 2006년도에는 사범대학 창립 60주년을 맞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사범교육이 시작된 이래, 그것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해방 후 사범대학의 설립과는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근대적인 교육은 한성사범학교의 설립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식민지시기에는 초등교원만을 양성하는 사범학교체제가 정비되었고, 해방을 맞아 미군정 하에서 모색된 신학제에서는 사범학교와 사범대학의 이원화된 체제가 수립되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사범교육의 역사적 변천은 국가 주도의 폐쇄형 양성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것이었다. 해방 이전의 사범학교체제는 교원을 양성하는 다양한 과정들을 위계적으로 배치하여 이수한 과정 혹은 학력에 따라 상이한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정착되었다. 해방 직후 신국가건설기에 새로운 교원양성체제를 구안하면서도 식민지시기의 사범학교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그와 유사한 국가적 지원과 통제 하의 독립적인 교원양성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을 분리하여 양성하는 이원화된 체제가 만들어졌고, 초등교원은 중등교육단계인 사범학교에서 중등교원은 고등교육단계인 사범대학에서 양성하는 위계적인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사범교육은 급격한 역사적 변천을 거듭해오면서도 국가주도의 폐쇄형 양성구조는 일관되게 유지되어왔고, 최근까지도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다.

■ 주요어 : 교원양성교육, 교원자격, 사범학교, 사범대학, 식민교육, 서울대학교

* 서울대 교육학과, 『2단계 BK21 역량기반 교육혁신 연구 사업단』 참여교수임.

** 서울대 교육학과, 『2단계 BK21 역량기반 교육혁신 연구 사업단』 참여 대학원생임.

I. 서론

지난해에는 한국의 근대적 사범교육 110주년을 기념하였고, 올해 서울대학교는 사범대학 창립 60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사범교육은 최초로 설립된 근대적 사범교육기관인 한성사범학교의 설립일인 1895년 5월 1일을 기원으로 삼고 있으며, 사범대학 창립 60주년이란 1946년 8월 22일 미군점령으로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해 국립서울대학교의 단과대학으로 사범대학이 설립됨으로써 최초로 대학에서 사범교육이 시작되었음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두 기념일은 우리의 교원교육사에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창립은 해방 후 신국가건설이라는 전 민족적 염원 속에 총체적인 교육체제구상 하에서 제출된 교원양성정책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부각된다. 1945년 해방으로 새로운 국가건설이라는 민족적 과제는 국민적 차원에서 수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분단된 남과 북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사범교육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다. 1946년 남한에는 종합대학으로 국립서울대학교와 그 단과대학으로 사범대학이 설립되었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교원대학(김형직사범대학)이 설립되었다. 이후 이들 기관들은 각각 남과 북에서 최고의 종합대학과 최고의 사범대학으로 성장하여 교원양성교육을 주도하게 된다. 그러나 그 과정이 그리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다(김기석, 2001). 특히 1946년 7월 13일 기존의 학교를 종합대학으로 통폐합하여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발표 이후 1년여 동안 좌·우익의 극단적인 갈등 양상을 보였던 ‘국대안 파동’의 과정에서, 새로운 사범교육체제는 어떠한가 하는가에 대해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드러났던 것이다. 지금의 사범대학제도를 낳게 된 ‘국대안’에 찬성하는 것이 옳았는가, 그것을 반대하는 측이 바람직했는가 하는 문제를 떠나서, 적어도 당시에는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범교육의 밑그림을 그렸던 이들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방 직후 사범대학의 창립은 우리의 사범교육의 역사와 어떻게 관련지을 수 있을 것인가. 본고는 현재와 같이 독립된 대학기관에서 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학의 창립으로 이어져 온 사범교육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한말 새롭게 도입된 근대적인 학제에 의해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어 운영되기 시작한 이래,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직후 미군정 하에서 새로운 교원양성제도가 모색되는 시기까지 주요한 사범교육의 변천을 조망해 보았다. 그리고 이 기간을 근대개혁기, 일제강점기, 신국가건설기 등의 세 시기로 구분하였으며, 신국가건설기는 미군정기부터 정부 수립에 이르는 시기로 한정하였다.

사범교육의 역사적 변화라는 맥락 위에서, 본고는 우선 사범대학의 연원을 살펴보고자 하

었다. 어느 한 제도가 운영돼 오면서 하나의 역사적인 결절로서 연원과 전통을 확인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범교육의 좌표를 시사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범대학제도가 갖는 역사적인 단절과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연원을 서술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점 또한 많은 것도 사실이다(서울대학교기록관, 2004). 다음으로, 본고는 역사적으로 변화해 온 사범교육의 특징을 두 가지 주제에 주목하여 분석해 볼 것이다. 우선, 우리의 사범교육이 폐쇄적 양성체제를 유지해온 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근대적 사범교육이 시작된 이래 최근까지 한 번도 의심받지 않았던 폐쇄적인 사범학교제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에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사범교육이 초등교원과 중등교원 양성과정으로 이원화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비단 양성기관만을 달리한 것이 아니라,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의 양성과정이 학제상에서 위계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는 과정에 주목할 것이다.

사범교육의 역사적 변천과 사범대학의 연원을 연구한다면, 그 전제로서 서술이 요구되는 항목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사범교육제도와 이전의 사범교육의 전통과의 관련성은 어떤 방법으로 분석될 수 있는지가 우선 당면한 문제로 앞선다. 즉 역사의 연속성과 단절을 어떤 방법으로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또 근대적인 사범교육이라 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외래적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만의 독자적인 특성이 발현되어 나가는 것인지, 또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도 문제가 된다. 나아가 식민지배라는 역사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외래적인 것은 또 무엇인지, 순수한 서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인지, 일본을 통해 변형되어 유입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인지도 문제가 될 것이다. 근대적 사범교육은 이른바 근대성과 식민성의 담론 내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해방을 맞이해서는 미군정 하에서 신국가건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일본적'이라는 담론과 더불어 이제 다시 '미국적'이라는 담론도 여전히 비판과 분석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본 연구 주제가 이러한 논의들의 자장 안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방법론적 구축이나 명료한 개념적 정의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이는 본 연구가 지닌 한계임을 먼저 밝히며, 본고에서는 사범교육의 제도적 변천을 조망한 뒤에 앞서 제시한 연구주제에 한정하여 고찰하는 것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상기의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해명할 수 있는 단서들이 발견된다면 더 바랄 바가 없을 것이다.

II. 근대개혁기의 사범교육과 한성사범학교

1. 한성사범학교의 설립

최초의 근대적 사범교육기관인 한성사범학교는 1895년에 5월 1일에 설립되었다. 당시 학부는 사범학교 설립안을 발의하여 4월 16일에 고종의 재가를 얻고(서울대학교도서관, 1991), 동일자로 공포된 「한성사범학교관제」(칙령 제79호)에서 그 시행일을 5월 1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구한국관보, 1895년 4월 19일). 그리고 1895년 7월 23일에는 「한성사범학교규칙」(학부령 제1호)이 제정되어 제도적인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한성사범학교의 설립일인 1895년 5월 1일을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사범교육의 출발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지난해 2005년은 ‘한국 근대사범교육 110주년’ 해가 되었다.

그러나 1895년 한성사범학교 관제가 마련되기 이전인 1894년에 이미 한성에는 사범학교가 운영되고 있었다. 이것은 정부의 공식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학무아문과 학부의 조직표에 이미 소학교 및 사범학교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1894년 6월 학무아문의 업무 분장에서 보통학무국은 소학교와 사범학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서울대학교도서관, 1991). 또한 중앙관제 개편으로 학무아문이 학부로 편제를 달리하면서 1895년 3월 25일에 제정된 「학부관제」(칙령 제46호)에도 학무국의 업무로 사범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구한국관보, 1895년 3월 25일).

이러한 규정들은 단순히 학교를 운영하기 전에 미리 법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만은 아니었다. 실제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서 의정부 회의와 업무를 기록한 『통서일기』에 의하면, 1894년 9월 2일 학무아문은 사범학교와 소학교의 설립 계획을 보고하고, 각 아문에 유능한 학생들을 추천할 것을 의뢰하고 있다(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추천 시 학생의 나이, 본적, 부명 및 천거인, 보증인 등을 기재하여 9월 5일까지 학무아문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등 사범학교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까지 이미 진행하고 있다. 이어서 학무아문은 1894년 9월 14일에 사범학교와 소학교의 개교일을 동월 18일로 정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9월 18일에는 한성사범학교가 교동에 정식으로 개교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1894년 가을에 이미 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는 기록은 당시 학무대신이었던 박정양의 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한국학문헌연구소편, 1984). 그는 1894년 9월 17일 사범학교와 소학교의 직원모임 및 18일 두 학교가 개학할 때에 참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박정양은 또한 다음달 2, 4, 17일 등에도 이 두 학교를 방문하고 있다. 그리고 1894년의 사범학교 운영에 관해서는 당시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기사화되고 있었다. 일본의 교육관련 잡지인 『교육시

론』에서도 1894년 9월 이후부터 한성에 사범학교와 소학교가 설립되었다는 기사와 함께 사범학교와 소학교의 운영 실태에 관한 내용이 자주 실리고 있다. 특히 한성사범학교 설립이 공포된 1895년 5월 무렵에는 학생들이 졸업 후 임용 문제와 처우 문제 등으로 동맹퇴학에 돌입하였다는 기사를 통해 본다면(教育時論 第363號, 1895), 이미 공식적인 개교일 즈음에도 현장으로 임용될 만한 학생들이 사범학교에 재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임후남, 2002).

이상의 사실들을 통해 본다면, 1894년 9월 18일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던 사범학교가 「한성사범학교관제」에 의하여 새롭게 법적인 정비를 갖추게 됨으로써 1895년 5월 1일부로 한성사범학교의 설립이 공포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5월 7일에는 기존 사범학교의 교장 이용익과 교수 정운경은 다시 한성사범학교의 교장과 교관으로 사령을 받고 있으며, 기존의 사범학교 학생들도 그대로 다시 한성사범학교로 편입되고 있었던 것이다(구한국관보, 1895년 5월 7일).

2. 한성사범학교의 사범교육

학부는 1895년 7월 23일에 「한성사범학교규칙」을 제정하여 교원을 양성할 체제를 완비하였다. 그 이전인 7월 19일에는 「소학교령」(칙령 145호)이 제정되어, 소학교의 교원에 관한 일반 규정도 마련될 수 있었다.

「한성사범학교규칙」에는 <표 1>와 같이 교수해야 할 교과목과 각 교과목의 교수 정도를 명시하고 있다. 본과는 수신, 국문 및 한문, 교육, 역사, 지리, 수학, 물리, 박물, 화학, 습자, 작문, 체조 등이었으며, 속성과는 수신, 교육, 국문한문, 역사, 지리, 수학, 이과, 습자, 작문, 체조 등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한성사범학교의 교과목 편제는 근대적 사범학교에 걸맞도록 ‘신학문’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학을 비롯하여 지리, 물리, 박물, 화학 등 이과 과목은 당시로는 대단히 신선한 과목이었다. 설립되고 수년이 지난 1903년에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한 한 학생도 학교에서 배웠던 과목 중에 ‘대수와 기하’ 혹은 ‘지구의 공전, 회전’ 등은 학생들로서는 처음 접하는 내용으로 매우 특별한 흥미를 갖게 했던 수업으로 회고하고 있다(김창제, 1933; 1936). 또 한성사범학교의 교과목 편제는 소학교의 교과목 편제와 대체로 상응하도록 구성되었고, 아울러 교육학 과목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근대적 지식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만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칠 전문적인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한성사범학교의 교과목 편제는 일본의 사범학교제도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일본에서는 국가주의교육이 강화되

<표 1> 한성사범학교 설치 학과 및 학과목(1895년도)

학과	수업연한	학과목	학과목 정도
본과	2년	수신	인륜도덕의 요지 및 그 교수법
		국문한문	강독
		교육	내외 교육의 연혁 및 저명한 교육가의 전기로부터, 교육 및 교수의 원리, 원칙을 授하고 부속소학교에 就하여 실지 수업의 방법을 연습함
		역사	본국 및 만국역사
		지리	본국 및 만국의 정치지리와 地文의의 초보
		수학	산술 및 대수, 기하의 초보와 그 교수법
		물리	물리 상의 긴요한 현상 및 定律
		박물	동식물의 생리와 위생
		화학	보통화학 상의 현상, 긴요한 원소 및 무기화합물의 성질
		습자	楷行草의 三體 및 그 교수법
		작문	일용서류 기사문 및 논설문
		체조	보통체조 및 병식체조
속성과	6개월	수신	인륜도덕의 요지 및 그 교수법
		교육	내외 교육사 및 저명한 교육가의 전기로부터 실지 수업을 연습함
		국문한문	강독
		역사	본국역사 및 만국역사 개요
		지리	본국지리 및 만국지리 개요
		수학	산술
		이과	大意
		습자	楷行草의 三體 및 그 교수법
		작문	일용서류 기사문 및 논설문
체조	보통체조		

자료: 「한성사범학교규칙」(1895년)

는 시기로 사범학교에서도 수신이나 병식체조 등이 강조되던 시기였다. 한성사범학교의 학과목 편제에서도 수신이 가장 수위에 놓이고 있으며, 병식체조도 포함되고 있다.

이처럼 한성사범학교의 학과목 편제는 근대적 사범교육을 지향하며 다수의 '신학문'과목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실시되는 교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95년 초의 有次滿象나 및 1896년 D. L. Gifford 등 당시 한성의 사범교육을 시찰했던 외국인들은, 사범학교의 교육은 여전히 한학이 중심이었고, 일본의 교과서를 번역한 초급산술, 역사, 지리 정도가 교수되고 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教育時論 第364號, 1895; Gifford, 1896). 설립 초기에는 새로운 학문을 가르칠 교관도 충분한 교재도 없었던 것이다. 이후 한성사범학교는 점차 교과서를 마련하고 교수를 초빙하면서 정상적인 교육여건을 갖추어 나갔다. 특히 1897년에 미국인 H. B. Hulbert가 부임하면서 새롭게 역사 및 지리 교과서가 채택되고 영어 과목이 추가로 교수되기 시작하는 등 한성사범학교의 교육여건은

더욱 일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성사범학교는 점차적으로 '신학문' 교과를 도입하고 새로운 교수를 초빙해가면서 근대적 사범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기 시작했다.

한성사범학교는 개교하기에 앞서 1895년 4월 19일 정식으로 학생 모집 광고를 낸 이후 부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었다. 입학시험 과목으로는 본과의 경우에 '국문의 독서와 작문', '한문의 독서와 작문' 두 과목이며, 속성과의 경우는 '조선지리'와 '조선역사'를 추가하고 있다. 「한성사범학교규칙」에 의하면, 한성사범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본과(2년)의 경우 2025세, 속성과는 22~35세로 연령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매시기의 선발과정에서 지원 자격으로서의 연령제한은 매우 탄력적이었으며, 또 지원자의 학력이나 경력상의 규제도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노인화, 1988). 다만 응시원서에 별도로 학업이력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재 항목으로는 국문, 유학경전, 역사지리 등에 대한 학업 정도를 서술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성사범학교에서의 학생선발은 여전히 한학에 대한 소양이나 유교적 가치 습득이 중요한 척도였던 것이다.

학생들의 졸업 현황은 <표 2>와 같다. 제1회 졸업자는 거의 대부분 소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고 있으나, 이후 몇 년 동안은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는 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 소학교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범학교 졸업자들의 비임용 적체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노인화, 1988). 그러나 실상 소학교에서는 정규 교원이 부족한 형편이었고, 오히려 사범학교 졸업자들이 임용을 기피하고 교직 외의 다른 부문을 선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임후남, 2002). 재학 중에도 외국어학교 등으로 전학하기 위해 퇴학하기도 하고, 졸업 후 임용을 받고도 부임하지 않거나, 부임한 뒤 곧바로 사직하는 경우도 많았다. 당국에서는 이러한 임용에 대한 기피 현상과 그로 인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99년 4월 12일 「관공립보통학교교원 서임시 시험규칙」(학부령

<표 2> 한성사범학교의 졸업자 수 및 비임용 현황(1895~1905년)

연도	졸업회수	이수과정	졸업자 수			졸업자 비임용 현황	
			優等	及等	계	비임용자 수	비임용 비율
1895	1	속성과	4	24	28	3	11%
1896	2	속성과	11	30	41	14	34%
1897	3	속성과	15	29	44	25	56%
1899	4		14	12	26	8	31%
1902	5		1	8	9	0	0%
1903	6		7	17	24	5	22%
1905	7		1	22	23	0	0%
계	-	-	53	42	195	-	-

자료: 김영우(1987), 『한국근대교원교육사(1)』, 정민사, 56쪽; 노인화(1988), 「대한제국 시기 관립학교 교육의 성격 연구」, 이화여대박사학위논문, 131쪽

제7호)을 제정하여 교원 임용시험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임용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만 졸업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여 합격자에게 졸업증을 수여하였다. 한성사범학교의 졸업증은 곧 교원 자격증을 의미하였으며, 졸업자들은 자격을 갖춘 소학교 정교원으로 인정되었다. 이들은 또한 국가 관료제 하의 관임관으로서, 자격 및 임용과 전출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

3. 통감부 시기의 관립한성사범학교

1906년 2월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종래의 대한제국 학제는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1906년 8월 27일 「사범학교령」(칙령 제41호)이 제정되고, 이어서 「사범학교시행규칙」(학부령 제20호)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한성사범학교는 1906년 9월 1일 관립한성사범학교로 개편되었다. 관립한성사범학교는 기존의 한성사범학교를 인수하였고, 1907년에는 새로운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등 대규모의 재정 투자가 이루어졌다. 본교사, 기숙사, 부속보통학교 등을 갖추었고, 도서, 기기, 표본 등의 교구도 완비되었다(高橋濱吉, 1927). 관립한성사범학교는 당시 관료들로부터 ‘한국 제일류의 학교’, ‘관공립학교의 모범’이라는 찬사를 받을 정도였는데, 전국에 관공립학교를 증설하는 ‘모범학교 정책’을 시행하던 통감부는 관립한성사범학교를 그 모델로 삼기도 하였다(學部, 1909; 1910).

관립한성사범학교로 개편되면서 교과목 편제나 교수요목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 본과의 교과목은 수신, 교육, 국어, 일어, 역사, 지리, 수학, 물리, 화학, 박물, 도화, 음악, 체조 등이었으며, 필요에 따라 농업, 상업, 수공 중에서 몇 과목을 추가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과목 편제상의 특징으로는, 그 이전에는 없었던 도화, 음악 등이 추가되어 소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에 보다 직접적으로 상응하도록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교수되지 않았던 교육학이 교수되기 시작했다. 또한 학년별로 교수해야 하는 학과과정 수준이나 수업시수 등도 보다 상세하게 규정되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의 식민지배가 노골화되기 시작하면서, 영어 등 다른 외국어는 사라지고 대신에 가장 많은 수업시수로 일본어가 신설되고 있으며, 실업 교과목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교과목 편제이기도 했다.

관립한성사범학교는 정규 과정인 본과 외에도 단기의 양성과정을 설치하고 있다. 1906년부터 교원임시양성과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후 강습과나 속성과를 설치하여, 전국에 증설되는 보통학교들의 교원수요를 충족하고자 하였다. 1906~1911년까지 관립한성사범학교의 졸업자 353명 중, 본과 졸업자는 82명이었지만, 교원임시양성과는 122명, 강습과는 31명, 속성과는 118명으로 단기과정을 통해 배출된 교원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김영우, 1987).

III. 일제강점기의 사범교육과 사범학교제도

1. 사범학교 부재기

일제의 조선 강점 이후, 조선총독부는 1911년 8월 23일 「조선교육령」(칙령 제229호)을 제정·공포하였고, 그와 더불어 그동안 유일한 교원양성기관이었던 관립한성사범학교는 폐지되었다. 이를 대신하여 1911년 10월 20일 「고등보통학교규칙」(부령 제111호)과 「여자고등보통학교규칙」(부령 제112호)을 제정하여, 고등보통학교에 사범과와 교원숙성과를 부설하여 부족한 교원을 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1894년 이래 교원을 양성할 목적으로 독립적인 학교기관 형태로 운영해 온 사범학교제도는 폐지되었고, 일반 중등교육기관에 단기간의 교원양성과정인 부설되는 체제로 전환되었다.

사범학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들의 설치와 폐지가 거듭되면서, 1910년대 교원양성교육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게 되었다. 우선 보통학교(조선인 학생 대상) 교원과 소학교(일본인 학생 대상)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이 각기 달랐으며, 보통학교 교원을 양성한다 하더라도 조선인과 일본인은 각기 다른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 아래 <표 3>은 1910년대 설치되었던 다양한 교원양성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1911년 10월에 경성 및 평양의 고등보통학교들에 교원숙성과가 설치되었다. 1913년 4월에 이 두 고등보통학교 및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 사범과가 신설되면서 교원숙성과는 폐지된다. 또 1911년 10월 경성고등보통학교에 보통학교 교원이 될 조선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성사범학교를 계승한 임시교원양성소를 부설하였다. 그리고 이 임시교원양성소

<표 3> 1910년대 교원양성과정 현황

양성 대상	양성 기관	설치 기관	수업 연한	설립~폐지
보통학교 교원이 될 조선인	(*)임시교원양성소(1부)	경성고등보통학교에 부설	3년	1911년 10월~1916년 5월
	교원숙성과	고등보통학교에 부설	1년 이내	1911년 10월~1914년 3월
	사범과	고등보통학교에 부설	1년	1913년 3월~1926년 3월
	임시교원양성강습소(회)	전국 각 道	6월, 1년	1920년 5월~1922년 3월
보통학교 교원이 될 일본인	(*)임시교원양성소(2부)	경성고등보통학교에 부설	1년	1913년 4월~1921년 3월
	임시여자교원양성소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 부설	1년	1919년 4월~1922년 3월
소학교 교원이 될 일본인	임시소학교교원양성소	조선총독부(경성)중학교 부속	1년	1911년 5월~1921년 3월

자료: 안홍선(2004), 「경성사범학교의 교원양성교육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쪽

는 1913년 3월 보통학교 교원이 되고자 하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동시에 양성하는 기관으로 개편되었다가, 1916년 5월에는 보통학교 교원이 되려는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지방에서 필요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각 도에는 임시교원강습소(또는 강습회)를 설치하여 보통학교 교원이 될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의 과정이 운영되었다. 또한 보통학교 교원이 되고자 하는 일본인 여성을 위해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임시여자교원양성소를 부설하였으며, 일본인이 다니는 소학교에서 근무할 일본인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임시소학교교원양성소가 운영되었다.

2. 관·공립사범학교체제기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는 자문기관으로 임시교육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형식적인 조선교육계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조선교육령」개정안(제2차)을 마련하였다. 여기에서 새로운 학제 개정안이 구상되고 있었는데, 특히 사범학교를 독립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교육령」개정안은 일본 추밀원의 심의를 거치고 1922년 2월에 칙령(제19호)으로 공포되었다. 이어 1922년 2월 23일 「사범학교규정」(부령 제17호)이 제정되어, 그동안 폐지되었던 사범학교제도의 기본적인 틀이 다시 마련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법규 개정은 그동안 고등보통학교에 부설된 단기의 양성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던 교원양성교육이 독립적인 학교기관인 관립과 공립의 사범학교에서 담당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관립 사범학교는 조선총독부 직할 기관으로서 서울(경성)에 설립되었고, 지방에는 도지방비를 재원으로 하여 공립의 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초등교원만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고, 여전히 고등사범학교 설립 등 중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하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표 4>는 1920년대 세워진 관립사범학교와 지방의 도립사범학교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경성사범학교는 1922년 3월 31일 「조선총독부제학교관제」(칙령 제151호)가 제정되면서 유일한 관립사범학교로서 설립되었다. 그러나 경성사범학교는 그 이전에 세워진 조선총독부사범학교를 개편하여 설립한 것이었다. 1921년 4월 19일 「조선총독부사범학교규칙」(부령 제67호)에 의해 그동안 경성중학교에 부설되어 있던 교원양성소를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던 조선총독부사범학교는 일본인 아동이 다니는 소학교 교원이 되고자 하는 교원만을 양성하던 기관이었다. 이것을 소학교만이 아니라 보통학교 교원이 되고자 하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함께 양성하도록 개편하였고, 그 이름을 개칭한 것이 경성사범학교였다.

관립사범학교인 경성사범학교와 지방의 공립사범학교는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었다. 관립

<표 4> 관립사범학교와 공립사범학교의 개요(1922)

	관립사범학교	공립(도립)사범학교
목적	소학교 교원이 될 자 및 보통학교 교원이 될 자를 양성	보통학교 교원이 될 자를 양성
편제	보통과(5년) 및 연습과(1년): 제1부(소학교교원)와 제2부(보통학교교원). * 연구과, 강습과 설치 가능 * 여성의 경우 보통과 1년 단축	특과(2년 또는 3년): 제2부(보통학교교원) * 연습과, 연구과는 설치할 수 없음 * 강습과 설치 가능 * 1925년 이후 모두 3년제
입학	보통과: 심상소학교 졸업자 또는 조선총독에 의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연습과: 보통과를 수료한 자, 중학교 혹은 수업연한 4년의 고등여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조선총독이 정한 바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특과: 고등소학교(보통학교 고등과) 졸업자 또는 조선총독에 의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졸업	본과 정교원(제1종 훈도)	심상과 정교원(제2종 훈도)

자료: 「조선교육령」(1922)와 「사범학교규정」(1922); 안홍선(2004), 「경성사범학교의 교원양성교육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2쪽

사범학교는 소학교 교원과 보통학교 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각각 제1부와 제2부를 둘 수 있었고, 수업연한 5년의 보통과와 수업연한 1년의 연습과를 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었다. 보통과는 심상소학교(6년)를 졸업한 정도의 학력을 지닌 자가 입학할 수 있었으며, 연습과는 보통과를 수료하거나 중학교(5년) 졸업 정도의 학력을 지닌 자가 입학하였다. 반면에, 지방의 공립사범학교는 수업연한 3년의 특과만을 설치하였으며, 보통학교 고등과(2년)를 졸업한 정도의 학력을 지닌 자가 입학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특과만이 설치된 공립사범학교에는 연습과 또는 연구과를 둘 수 없었다.

이와 같이 1920년대의 사범학교체제는 수업연한이나 학과목 편제가 다른 관립사범학교와 공립사범학교를 설립하여 교원을 양성하는 것이었고, 각 사범학교가 양성·배출하는 교원들은 그 자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다. 관립인 경성사범학교는 보통과와 연습과가 연계되어 있었고, 졸업자에게는 소학교 본과 정교원(제1종 훈도)의 자격이 인정되었다. 반면 도립인 공립사범학교는 특과만이 설치되어 있었고, 졸업자에게는 심상과 정교원(제2종 훈도)의 자격이 부여되었다. 그리고 단기의 양성과정을 통해 교원이 된 이들은 준교원의 자격이 주어졌으나, 이들은 일종의 무자격 교원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이처럼 이수과정 및 졸업한 학교에 따른 교원자격상의 차이는, 1920년대에는 관립과 공립 사범학교간의 차이로, 1929년도 이후에는 똑같은 관립이면서도 경성사범학교와 그 외 사범학교간의 차이로 그대로 존속되었다. 이와 같이 이수과정에 따라 교원자격이 인정되는 사범학교제도는 사실상 정규의 사범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자에게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폐쇄형 양성체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표 5> 공립사범학교 재학생 현황(1928년, 단위: 명)

	특과			합계	비고
	1년	2년	3년		
경기	48	51	90	189	강습과(25명)
충북	30	29	29	88	
전북	33	41	40	114	
전남	51	51	46	148	
경남	90	69	62	221	
황해	40	39	39	118	
평남	40	31	29	100	
평북	30	29	40	99	
강원	26	30	29	85	
충남	30	41	49	120	강습과(20명)
경북	74	76	71	221	강습과(27명)
함남	35	38	28	101	
함북	30	30	26	86	
합계				1,690	강습과(72명)

자료: 조선총독부학무국(1928), 『조선제학교일람』, 399~408쪽

3. 관립사범학교체제의 정비

1928년 6월 조선총독부의 제4대 총독 山梨半造은 임시교육심의위원회를 두어 「조선교육령」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데 착수하여, 1929년 4월 18일 「조선교육령」의 부분 개정(칙령 제82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같은 날 「조선총독부제학교관제」(칙령 제83호)와 이튿날 「사범학교규정」(부령 제35호)을 개정하여 사범학교체제는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었다.

관립의 경성사범학교는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지방의 13개 공립사범학교는 모두 폐지하고 재학생이 졸업하는 1931년 3월까지 잠정적으로 유지하였다. 대신에 1929년에 대구와 평양에 관립사범학교를 신설하였고, 신설된 관립사범학교에는 심상과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심상과는 경성사범학교의 보통과와 마찬가지로 보통학교 졸업자가 입학하여 5년 연한의 교육을 받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심상과는 제2부만을 설치하여 보통학교의 교원이 될 자를 양성하는 데 한정하였고, 사범학교의 본과라 할 수 있는 연습과와 연계되지 않아 졸업 후에는 심상과 정교원(제2종 훈도)의 자격만이 인정되었다.

「조선교육령」의 개정으로 그동안 관립사범학교와 공립사범학교로 이원화되었던 양성체제는 3개의 관립사범학교체제로 재편성되었다. 그러나 이런 변화로 인해 그동안 총 14개 사범학교(관립 1개, 공립 13개)가 3개의 사범학교(경성, 대구, 평양)로 줄어들어 안정적인 교원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각 사범학교에는 정규과정 외에 단기간(6개월 혹은

1년)의 강습과를 증설하는 것으로 부족한 교원을 임시로 충원해 나갔으며, 장기적으로는 1935년 경성여자사범학교를 설립한 것을 필두로 매년 1개교씩의 관립의 사범학교를 전국에 증설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1936년 전주, 1937년 함흥, 1938년 공주여자와 광주, 1939년 춘천, 1940년 진주, 1941년 청주, 1942년 신의주, 1943년 대전, 해주, 청진, 그리고 1944년 원산여자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이렇게 하여 해방 직전에는 전국에 모두 16개의 남·여 관립 사범학교가 운영되고 있었다.

관립사범학교체제로 정비된 사범교육은 이후에도 몇 차례 제도적인 변화를 겪는다. 1933년에 연습과의 수업연한이 2년으로 늘어나 이미 전문학교 수준의 학교가 되었으며, 1938년 3월 3일 「조선교육령」(3차)의 개정(칙령 제103호)에 따라 제1부(소학교 교원양성)와 제2부(보통학교 교원양성)로 나뉘어 있던 과정이 하나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1943년 3월 「조선교육령」(4차)이 개정(칙령 제113호)될 즈음에는 전쟁의 막바지로 국가총동원체제가 강화되는 시기로서, 이미 1월 21일 「중등학교령」(칙령 제36호)의 제정되어 중학교 등 중등교육과정이 4년제로 수업연한이 축소되었다. 그리고 3월 9일 「사범교육령」(칙령 109호)과 3월 27일 「사범학교규정」(부령 제62호)에 의해 사범학교를 4년의 예과 과정과 3년의 본과 과정으로 재편하여 관립전문학교로의 승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1943년 4월에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가 예과와 본과를 갖춘 전문학교로 승격되었고, 1944년에는 대구사범학교와 평양사범학교도 전문학교가 되었다. 그 외의 12개 사범학교는 해방 직전까지도 본과는 설치되지 않았고, 심상과와 일부 강습과만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표 6> 관립의 각 사범학교 설립 시기와 현황(1942년 5월말 현재)

	설립 연도	학급 수	교직원 수			학생 수			경비 총액 (円)
			조선인	일본인	계	조선인	일본인	계	
경성사범학교	1922	25	10	44	54	459	641	1,100	639,875
대구사범학교	1929	18	6	26	32	586	247	833	281,925
평양사범학교	1929	18	6	26	32	591	119	710	268,470
경성여자사범학교	1935	18	12	31	43	430	479	909	418,045
전주사범학교	1936	15	5	30	35	651	48	699	367,677
함흥사범학교	1937	15	3	29	32	624	80	704	253,248
공주여자사범학교	1938	13	6	23	29	321	364	685	306,542
광주사범학교	1938	16	5	23	28	632	62	694	271,953
춘천사범학교	1939	11	5	23	28	518	27	545	297,765
진주사범학교	1940	12	1	24	25	580	46	626	312,914
청주사범학교	1941	8	2	14	16	376	24	400	266,320
신의주사범학교	1942	8	1	8	9	265	-	265	211,683
총 합		177	62	301	363	6,033	2,137	8,170	3,896,417

자료: 조선총독부학무국(1942), 『조선제학교일람』, 196-200쪽

한편, 식민지시기가 끝날 때까지 중등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관은 설립되지 않았다(김영우, 1989). 1910년대에는 중등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필요한 중등교원은 대부분 일본인으로 충당하였으며, 일본에서 유학하거나 전문학교를 졸업한 극소수의 조선인들이 일부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1920년대 들어서면서 자격 있는 일본인 중등교원을 초빙하는 일이 어렵게 되자 1920년 중등교원위탁생제도가 채택되었다. 일본 내에서 중등교원 양성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미리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조선으로 건너와 중등교원으로 복무하는 정책이었다. 1920년대 후반부터는 경성제대나 관립전문학교에 농업보습학교교원양성소, 농업교원양성소, 지리박물관교원양성소, 박물관교원양성소, 이과교원양성소 등을 부설하여, 수요가 늘고 있는 실업계 및 이과계의 중등교원을 양성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IV. 신국가건설기의 사범교육과 사범대학의 설립

1. 해방 직후 사범교육체제의 정비

해방을 맞아 미군정이 실시되기 전까지 많은 학교들은 이미 한국인이 장악하고 있었다. 전국준비위원회와 지방의 인민위원회가 급속도로 조직되어 나갔고, 학교에서도 자치회가 조직되어 일본인들로부터 각급의 학교를 인수하여 학교의 재개에 대비하고 있었다(대한교원공제회 교원복지신보사, 1996). 그러나 미군정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부정하고, 모든 학교를 폐쇄한 뒤 미군정이 장악한 상태에서 각급 학교를 재개하고자 했다.

이러한 미군정의 원칙은 미군이 진주하여 본격적으로 군정을 실시하기 이전부터 이미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군이 진주하기에 앞선 8월 29일 미군 제24사단 참모차장 K. C. Strother는 휘하 부대에 군정의 전반적인 목적과 각 부문의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교육과 관련하여 우선 착수해야 할 일로 5가지 사항이 열거되어 있다(阿部洋 외, 1987). “1. 모든 교육행정기관의 관리·통제 2. 초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교육기관의 폐쇄 3. 모든 교직원관계자의 자격심사 4. 연합군 최고사령관 및 본 사단 사령관의 지시에 의거한 교육과정의 개정 5. 기독교계 학교·대학의 재개 및 설립에 관한 조사·권고” 등이 그것이다. 이에 의하면 미군은 이미 서울에 진주하기 이전부터 각급 학교를 일시에 폐쇄하고 모든 학교를 미군이 관리·통제한 후에 교육을 재개하도록 하였고, 교육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자격을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미군의 정책에 의거하여 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명시함으로써 미군이 선호하고 자문을 구할 대상

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런 원칙들은 이후 미군정의 학무국 정책으로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학무행정을 둘러싼 지난한 대립과 갈등을 예고하게 된다.

미군이 서울에 진주하여 조선총독으로부터 항복을 수리하고 군정 실시를 포고한 것은 1945년 9월 9일이었다. 같은 날 미군의 군정 요원들이 인천에 상륙하였고, 이들이 중앙청에서 군정 업무를 시작한 것은 9월 11일이었다. 학무국의 미군정 책임자는 E. N. Lockard 대위였으며, 업무를 개시하면서 당면의 과제는 학교를 재개하는 것과 일본인 관료를 대체할 한국인을 채용하는 문제였다(정태수 편, 1992). 미군정은 일단 각급의 교육기관을 폐쇄하고 미군정이 통제권을 장악한 이후 재개하고자 하였으며, 교사나 교육관계자는 자격을 심사하여 재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갔다. 먼저 미군정 학무국은 1945년 9월 24일부터 모든 초등학교의 개학을 지시하고, 이어 10월 1일부터 중등학교 이상 각급 학교의 개학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사범학교에 대해서는 “남녀 사범학교 본과는 중등교원 양성기관으로 하고, 학생을 편입 또는 모집한다”는 새로운 방침을 제시하였다(매일신보, 1945년 9월 31일).

이에 따라 당시 남한에 있던 10개 사범학교 가운데 본과 과정이 설립되어 있던 경성사범학교, 경성여자사범학교, 대구사범학교만이 학교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학수준으로 승격되었고, 그 목적과 기능도 초등교원양성에서 중등교원양성으로 바뀌게 되었다. 미군정 학무국 기록에는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그 명칭 ‘Normal School’에서 ‘Normal College’로 즉시 변경되어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정태수 편, 1992). 한편 1946년 2월 학무국장 Lockard는 한시적으로 유지될 새로운 교육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대학수준의 학교들은 총칭하여 ‘great school’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대학 수준의 사범학교는 ‘normal great school’이라 칭하고,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고급 중학교 수준의 사범학교는 ‘normal school’이라 부른다고 설명하고 있다(정태수 편, 1992). 그러나 1946년 10월 사범대학이 ‘College of Educ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서울대학교 사범대학)로 출범하거나 혹은 ‘Taegu Normal College’(대구사범대학)로 명명되기까지, 이들 사범학교에 대해서 미군정은 통일된 이름으로 기록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개의 우리말 언론에서는 사범학교라는 교명을 그대로 붙여서 쓰고 있었다.

새로운 학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미군정 학무국의 자문기구로서 조직된 조선교육심의회는 1945년 11월 13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제7분과위원회가 사범교육에 관한 분과이며 분과위원은 장덕수, 장이욱(경성사범교장), 김애마, 신기범, 손정규(경성여자사범교장), L. E. Farley 대위, 허현 등 총 7인이었다(문교부, 1988). 1945년 12월 5일 제2분과위원회(교육제도) 결의안 중에는 중등교육에 사범학교를, 고등교육에 사범대학을 각각 포함시키는 결정이 채택되고 있다(자유신문, 1945년 12월 7일). 곧이어 「현행 교육제도에 대한 임시조치안」이 발표되어 현

행 제도는 1946년 8월까지만 연장 유지하도록 하며, 신교육제도가 실시되는 1946년 9월부터 사범학교 본과 재학자는 신제도에 의한 사범대학의 상당 학년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아일보, 1945년 12월 14일). 1946년 초 조선교육심의회 제7분과위원회(사범교육)가 학무국에 보고한 최종적인 심의사항은 아래와 같다(정태수 편, 1992).

1. 사범교육의 목적은 민주주의, 애국심, 국제협력에 기초한 교육제도 내에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자로서의 인격, 지식, 교수법을 완전하게 갖추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a) 초급중학교 수준의 사범학교 폐지
 (b) 각 도에 고급중학교 수준의 남·여 사범학교 각 1교씩 설립
 (c) 사범대학 설립
 (d) 사범학교와 사범대학에 단기의 교원양성과정 설치
 (e) 모든 사범학교에 부속 유치원과 부속 초등학교 설립, 사범대학에 부속 유치원, 부속 초등학교, 부속 중등학교 설립
3. 월 25원씩 재학생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장학금제도로 대체하며, 현재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이를 계속 받게 할 것.
4.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다.(생략)

조선교육심의회가 건의한 신학제의 최종 결의안은 1946년 3월 7일 학무국으로 이관되었고, 같은 날 학무국은 사범대학의 신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조선일보, 1946년 3월 8일). 이렇게 하여 새롭게 정비되는 사범교육은 이원적인 체제로 구상되었다. 조선교육심의회는 기존의 대학 예과 및 전문학교 등의 학교제도는 폐지하고, 4년제 대학 형태로 단일화한다는 고등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있었다(강명숙, 2002). 이에 따라 조선교육심의회는 사범교육분과에서는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사범학교와 중등교원 양성을 위한 사범대학이라는 2대 교육기관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기에 이른 것이다. 교원양성교육은 독립된 교육기관에서 담당하는 목적형으로 하면서도,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은 각기 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기관에서 양성하도록 한 것이다. 즉, 새로운 6-6(3-3)-4학제에 기초하여, 초급중학교에서 연결되는 중등학교 수준의 사범학교가 전국에 신설되었다. 또 고급중학교에서 연결되는 사범대학은 고등교육 단계의 4년제 대학으로서 1946년 9월부터 설립·운영되도록 하였다. 이윽고 1946년 8월 22일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미군정법령 제102호)이 제정됨으로서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가 통합되어 중등교원 양성을 위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최초의 사범대학으로서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2.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사범학교 증설

해방을 맞아 일본인 교원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각급 학교의 교원을 양성하는 문제는 시급한 과제였다. <표 7>에 의하면 1944년 현재 각 학교급별 조선인 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초등교원은 21,660명으로 전체 교원의 64%에 해당하고, 중등 교원은 1,894명으로 33%, 전문 학교 이상의 고등 교원은 377명으로 30%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리고 식민지시기에 억제되었던 취학 욕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족한 교원 수요를 충족하는 것은 대단히 시급한 문제였다.

1945년 해방 당시 남한에는 10개의 사범학교가 있었다. 이 가운데 경성사범, 경성여자사범, 대구사범 등 3개교는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학으로 개편되었고, 이들 외에 초등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사범학교가 전국에 증설되었다. 1946년에는 경기사범학교(이후 서울사범학교), 개성사범학교(이후 인천사범학교), 부산사범학교, 충주사범학교, 강릉사범학교, 군산사범학교, 목포사범학교, 순천사범학교가 신설되었고, 안동사범학교가 1947년에, 대구사범학교는 1950년에, 그리고 제주사범학교가 1953년에 개교하였다(문교부, 1946; 정태수 편, 1992; 각 학교사). 이로써 1953년을 기준으로 총 18개의 사범학교에서 초등교원을 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사범학교의 명칭은 이전과 동일하였지만, 고급중학교 수준으로 개편됨에 따라 신학제 적용을 위한 과도적 조치가 필요했다. 이전의 사범학교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입학하는 학교였지만, 1946년 9월부터는 초급중학교(3년) 졸업자가 입학하는 학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사범학교의 심상과(5년)는 폐지되고 대신에 사범학교에 본과와 과도적인 예과를 두어 재학생들은 본과나 예과의 해당 학년으로 편입되었다.

새로운 학제에 의해 1947년부터 사범학교에는 3년 과정의 본과를 두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6년제로 운영되는 곳도 적지 않았다(박진동, 2004). 경기사범학교를 비롯하여 개성사범학교, 전주사범학교, 부산사범학교, 순천사범학교, 강릉사범학교 등에서만 3년제 본과를 운영하

<표 7> 해방 직전 학교급별 조인인과 일본인 교원 비율(1944년 5월)

	총인구	초등		중등		고등	
		교원	학생	교원	학생	교원	학생
조선인	25,191,694	21,660	2,290,610	1,894	117,198	377	3,254
(비율)	(97%)	(64%)	(96%)	(33%)	(71%)	(30%)	(42%)
일본인	708,448	12,275	98,536	3,807	48,725	886	4,461
(비율)	(3%)	(36%)	(4%)	(77%)	(29%)	(70%)	(58%)
학교수		5,229		510		25	

자료: 이길상·오만석 편(1997), 『한국교육사료집성: 미군정기편』 2, 348-349쪽.

였고, 나머지 학교들인 청주사범학교를 비롯한 충주, 대전, 공주, 순천, 목포, 진주 등의 사범 학교는 6년제로 운영하였다. 그리고 공주여자사범학교는 6년제의 심상과를 계속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 6년제 사범학교가 6년제 병설중학교와 3년제 사범학교로 정식으로 구분된 것은 1949년 12월에 제정된 교육법 공포 이후의 일이었다. 6년간의 사범학교 과정을 예과와 본과로 구분하든, 예과를 병설중학교 형태로 운영하든 간에 사범학교의 입학은 사실상 초등학교 졸업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1948년 7월 실시되었던 경기도 중등학교 입시를 보면(동아일보, 1948년 5월 21일), 각 군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추천된 학생들을 사범학교에 무시험으로 입학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 사범학교의 교육과정은 일제 말기의 심상과와 비슷하게 유지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1988). 학과목 가운데 수신과 공민이 없어지고, 일본어 대신에 국어가 추가되는 정도였다. 또 사범학교를 종결교육으로 보았기 때문에 외국어 과목은 부과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1946년 9월에 개정되는데, 고급중학교의 교육과정에 준하여 사범학교의 교육과정도 새롭게 편성한 것이다(정태수 편, 1992). 당시 중등교육과정의 특징이었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구분이 도입되었고 외국어 과목의 비중도 증가하였다. 다만 이들 사범학교의 교육과정이 일반계 고급중학교와 달랐던 점은 교육학 및 교수법 과목에 있었으며, 특히 교생실습 등이 강조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3. 중등교원 양성을 위한 사범대학 설립

1945년 해방 직후, 경성사범학교는 장이욱, 경성여자사범학교는 손정규가 각기 해당 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하여 일본인 교장으로부터 학교의 제반 사무를 인수하였다. 그리고 전문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본과 과정을 대학 수준으로 승격시키려는 계획 하에 교수를 초빙하고 재학생들을 재편하는 등 대학기구를 정비해 나갔다(서울대학교사범대학오십년사편찬위원회, 1997). 1945년에 새롭게 경성사범학교의 행정기구를 구성했던 교장 장이욱, 부교장 신기범, 교무과장 이종수, 학생과장 김계숙, 도서과장 임석재 등은 1946년 10월 사범대학으로 개편된 후에도 학장, 부학장 등 해당하는 행정보직에 그대로 임명되고 있다. 또한 1946년 10월 22일 정식으로 발령을 받는 사범대학의 전임 교수 중에는, 식민지시기의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9명이었고, 해방 이후 공식 출범 이전에 근무를 시작했던 이들도 20명이었다.

대학기구 구성 외에도, 신학제인 6-6(3-3)-4제가 요구하는 대학 수준에 맞도록 기존 사범학교의 재학생들을 재배치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식민지시기에 중등학교는 5년제였던 데다

가 식민지말기에는 그마저도 4년제가 되었고, 사범학교는 4년제의 예과와 3년제의 본과로 편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해방 당시 사범학교 재학생 중 최고 학년인 본과 3학년은 학제상 14학년에 해당하므로, 학부 2학년으로 편입시켰다. 또 본과 2학년 중에는 13학년과 1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각 학부 1학년과 전문부 2학년으로 편입시켰다. 그리고 본과 1학년은 전문부 1학년이 되었고, 그 이하 예과생들은 모두 해당 학년에 맞게 부속중학교로 편입시켰다. 당시 신학제에서 대학은 6년제의 중등교육과 연결되지만, 일제시대 말기에 운영된 중등교육은 4년제였기 때문에 2년간의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당시에 전문학교에는 전문부, 대학에는 예과라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다.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 및 대구사범학교도 전문부를 설치하여 문과와 이과로 편성하였고, 1946년에 사범대학으로 편제된 후에는 모두 예과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사범학교에는 정규 과정 외에도 단기로 중등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인 중등교원양성소가 설치되고 있었다. 대구사범학교에는 1946년 2월에,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에는 3월에 중등교원양성소가 부설되어 6개월 과정으로 운영되었다(김종철 외, 1989). 경성사범학교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으로 흡수된 후에도 중등교원양성소는 계속 유지되어 1946년~1949년까지 국어과, 영문과, 사회생활과, 역사과, 수학과, 일반문리과, 생물과, 가정과, 체육과 등 총 664명의 수료자를 배출하고 있다(김영우, 1989). 중등교원양성소 외에도 부족한 교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반 대학과 각 시도에 임시중등교원양성소를 설치하기도 하였고, 또 각 대학과 사범대학 등에 중등교원속성과를 두어 수요가 많은 이과계 중등교원을 양성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식민지말기에 전문학교로 승격되었던 각 사범학교는 사범대학으로의 승격을 준비하며 교수진과 행정기구를 정비하였고, 기존의 사범학교 재학생을 각기 해당하는 과정으로 재배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장 임용에 반대하며 수업을 거부하는 등 진통이 계속되었다. 대구사범의 경우에도 김용하가 학교장에 취임하였으나 종합대학 승격 요구 등으로 수업거부 사태가 계속되었다(정태수 편, 1992). 이들 사범학교는 해방 직후부터 사범대학으로 발족될 때까지 1년여 동안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못했으며, 학칙이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서울대학교사범대학삼십년사편찬위원회, 1975). 사범대학으로 승격된다는 전제 하에 1946년 5월 21일 해당 학과에 대한 학생 모집 공고를 내고 있는데, 실제로 설치된 학과와 일치하지 않거나 심지어 아직 설치할 학과가 결정되지 못한 상태이기도 했다(동아일보, 1946년 5월 21일).

4. ‘국대안’과 사범대학의 운영

조선교육심의회에서 심의·보고한 신학제에서는 4년제의 단일한 대학 형태를 특징으로 하는 고등교육정책이 구안되었고, 교원양성교육은 중등교육 단계의 사범학교와 고등교육 단계의 사범대학이라는 2가지 형태가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중등교원 양성기관은 4년제의 대학 형태가 되어야 했다. 조선교육심의회에서는 고등교육 단계에 있는 전문학교 수준의 고등사범학교 제도의 도입도 검토된 바 있으나, 신학제 하에서의 단일화된 대학 형태와는 양립될 수 없었다(박수정, 2002). 결국 중등교원은 4년제의 대학 형태인 독립적인 사범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사범대학은 대학에서의 교사양성을 지향하고 있지만, 교과교육과 교직교육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재학생에게 수업료 면제나 학자 지급 및 의무 복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교육대학과도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이처럼 해방 직후 설립하고자 했던 사범대학은 일본의 고등사범학교와 미국의 교육대학 모델이 절충되고 있었다. 이는 당시 조선교육심의회 사범교육분과에 참여한 한국인 중 3인은 일본의 고등사범학교 출신이거나 당시 사범학교 관계자였으며, 다른 3인은 미국에서 교사교육으로 명망이 높았던 콜롬비아대학원에서 수학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문교부, 1988).

1946년 8월 22일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미군정법령 제102호)에 의해 종합대학으로서 국립서울대학교의 창립 방안이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또한 기존의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를 통합하여 하나의 단과대학으로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부속 국민학교도 개편되었고, 두 사범학교의 예과 및 심상과생들을 중심으로 부속중학교도 설립되었다. 종합대학 내의 하나의 단과대학으로 출발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은 교육과·국문과·영문과·사회생활과·수학과·물리화학과·생물과·가정과·체육과 등 9개 학과가 설치되어 1946년 9월 18일 첫 입학식이 거행되었다(서울대학교사범대학오십년사편찬위원회, 1996). 그런데 사범대학은 학부 3학년, 즉 1945년 해방 당시에 학부 2학년으로 편입된 학생들을 최고 학년으로 하여 출발했기 때문에 이듬해인 1947년에는 졸업자가 없었다. 서울대학교로서는 1947년 7월 11일에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하였으나, 사범대학의 학부에서는 1948년 8월 10일에서야 교육과 4명, 국문과 7명, 영문과 5명, 사회생활과 15명의 제1회 졸업생을 낼 수 있었다. 따라서 1948년 서울대학교의 제2회 졸업이 사범대학에서는 제1회 졸업이 되었고, 이러한 차이는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사범학교는 1946년 10월 15일에 폐지되고, 국립대구사범대학으로 개편하여 개교하게 되었다. 대구사범학교의 심상과와 부속국민학교는 각각 대구사범대학 부속중학교와 부속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경북대학교20년사편찬위원회, 1972). 정규의 4년제로 출범한 대구사범대학도 편제상으로는 학부과정과 예과과정을 두었다. 학부과정에는 교육과, 국문과, 영문과, 사

회생활과, 수학과, 물리화학과 등 6개 학과를 설치하였으며, 예과과정은 문과와 이과를 두었다가 모두 전문부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출범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대구사범대학은 모두 설립 당시부터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1946년 7월 13일 국립종합대학교 설립안이 발표되고 난 후, 이른바 ‘국대안 파동’으로 좌우 갈등의 이념적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경우, 학교당국은 9월 12일부터 3일 동안 학생들이 등록을 마치도록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당시 학생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좌익 계열은 ‘국대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었으며, 9월 6일 학생회는 이미 등록 거부를 결의하고 있었다(서울대학교사범대학삼십년사편찬위원회, 1975). 9월 18일에는 사범대학의 입학식이 있었고 9월 26일에는 개학식이 진행되었지만, 이러한 학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9월 30일까지 사범대학에 등록한 학생수는 933명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600여명은 여전히 등록을 거부하고 있었다(정태수 편, 1992). 당시 ‘국대안’ 반대운동은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10월 말까지 사범대학의 일부 교수들은 업무 복귀를 하지 않았고, 또 사범대학이 예정한 강의의 약 25% 정도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대구사범대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경상북도 학무과에서는 국립 서울대학교의 설치에 자극을 받아 대구 지역의 대학을 통합하여 국립 종합대학교를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를 반대하는 학내외의 소요 사태로 대구사범학교도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사범대학의 파행적 운영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경우는, 1947년 3월 14일 학생들의 소요가 경찰에 의해 강제 진압되고 나서야 비로소 정상화되기 시작하였다. 대구사범대학도 1947년 3월 초 국립종합대학 설립 계획이 문교부에서 승인되지 않은 것을 계기로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국대안 파동’의 후과는 계속되어서, 1948년도에도 미군정 학무국은 “현재(1948년 7월) 사범대학은 그 이름뿐이다. 교수진은 빈약하고, 교육방법은 몇 십 년 뒤져 있으며, 교육과정은 일본의 교육과정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였다(정태수 편, 1992).

한편, 공주사범대학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및 대구사범대학과는 약간 다른 설립 과정을 거친다. 1946년 6월 공주여자사범학교의 교장과 지역 유지들은 공주에 사범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공주사범대학은 1947년 11월에 학생을 모집하여 교육과, 국어과, 가정과 등을 설치하였고, 공주여자사범학교의 교실을 빌려 초급대학 과정의 2년제로 시작하였다. 계속되는 청원운동 끝에 1948년 7월 31일 충청남도 도립의 설립 인가를 얻음으로써, 공주사범대학은 기존의 사범학교에서 승격되지 않고 새롭게 설립된 최초의 사범대학이 되었다(공주사범대학35년사편찬위원회, 1983). 도립의 사범대학으로 출발한 공주사범대학은 그 후 국립으로의 이관운동을 전개하였고, 2년 후인 1950년 6월 21일에는 국립대학

으로 승인받게 되고, 1954년에는 4년제로 개편되었다.

이처럼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대구사범대학 등은 1946년도에 설립되었지만,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사범대학제도가 법적·제도적으로 확립되는 것은 1940년대 말과 195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였다. 정부 수립 직후 1949년 12월 31일에 처음으로 공포된 「교육법」(법률 제86호)에서는 미군정 당시의 사범학교(초등교원 양성)-사범대학(중등교원 양성)체제는 유지하면서도, 사범대학을 다시 2년제와 4년제로 구분하여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원을 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마련된 사범대학체제도 곧이어 6·25가 발발하면서 정상적인 궤도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 후 1952년 4월 23일 제정 공포된 「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633호)으로 사범대학의 교육과정과 운영방식이 규정되고, 1953년 4월 18일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85호)이 제정되어 교원의 자격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중등교원 양성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사범대학은 비로소 그 법제적 기초를 확립하게 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사범대학의 기원과 설립과정을 서술하는 데 있어 그 연원이 되는 근대적인 사범교육의 도입과 전개과정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관련되어 왔는가를 검토해 보았다. 사범교육의 역사는 우리의 근·현대 정치사가 갖는 역사적 부침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근대적 개혁기로부터 일제의 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 분단으로 인해 남한에 단독정부가 수립되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크게 세 번의 역사적 굴절을 겪었다고 한다면, 근대개혁기에는 한성사범학교를 세워 근대적인 사범교육을 개척하였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영향 아래 사범학교제도가 정착되었으며, 미군정 하에서는 사범학교와 사범대학을 통해 새로운 교원양성제도를 모색해왔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변화를 거쳐, 우리의 교원양성교육은 독립적인 양성기관을 따로 설치하고,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을 각각 분리하여 교육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급격한 변화를 겪어온 사범교육의 역사에서 제도적인 연속성을 설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최초의 근대적인 교원양성기관이었던 한성사범학교는 일제의 식민주의정책이 노골화되면서 그 이전과는 매우 다른 질적인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또한 일제의 조선 병합과 함께 그동안 유일한 사범학교였던 한성사범학교가 폐지되었다. 식민지 초기에는 별도의 교원양성기관을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하지 않고, 각급의 중등

교육기관에 단기간의 양성과정을 부설하여 교원 수요를 충족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후에 서울에는 관립사범학교가, 그리고 각 지방에는 공립사범학교가 설립되기도 하였고, 이들 공립사범학교가 모두 폐지된 후에는 소수의 관립학교체제로 정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범학교들은 모두 초등교원만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었으며,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제도적 발전은 대단히 미약하였다. 따라서 해방 후에는 중등교원의 양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결국 사범대학을 새롭게 설립하여 중등교원을 양성하도록 하고, 사범학교에서는 초등교원을 양성하게 함으로써, 이들 사범대학과 사범학교는 각기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범교육의 제도적 변천사를 고려한다면, 해방 이후 종합대학의 단과대학으로 창설된 사범대학의 연원을 밝히는 문제 또한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게 되었다. 특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전사를 서술함에 있어, 창설의 모태가 되었던 경성사범학교와 경성여자사범학교를 어떻게 포괄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범대학은 중등교원 양성 기관이었지만, 이 두 사범학교는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이었다. 물론 이들 사범학교는 해방 직후 학교기구를 정비하고 교수진 및 학생들을 재편하여 중등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 수준으로 승격·개편되었고, 또 두 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이 사범대학 설립의 결정적 모태가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은 해방 이전의 사범학교에 연원을 두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범대학의 연원을 경성사범대학과 경성여자사범대학에 두는 경우에 이들 두 사범학교가 일제강점기에 식민교육의 연속을 꾀했던 중추적인 식민지 교육기관이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은 해방 직후인 1945년부터 이미 출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해방 직후 이 두 사범학교에서는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독자적으로 식민교육의 청산과 새로운 민족교육을 구상하여 실행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재학생 및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를 얻고 있던 이러한 노력들은 '국대안 파동'의 과정에서 실행되지 못하고 결국 좌초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간과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범교육의 역사에서 발견되는 특징으로 국가 주도의 폐쇄적인 사범교육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패전과 함께 국가 주도적이며 폐쇄적인 사범교육제도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비판이 수행되어, 기존의 사범학교제도는 전면 폐지 혹은 개편되었고, 심지어 학교명에서는 물론이고 교수용어에서조차 '사범교육'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식민지시기 일본의 사범학교제도를 도입한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방 후 새로운 교원양성체제의 청사진을 구상하던 당시에도 식민지시기의 사범교육제도가 갖는 국가주의적인 성격이나 폐쇄적인 양성방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한성사범학교나 혹은 식민지시기의 사범학교에서

정규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들은 모두 수학연한과 관계없이 사실상 무자격 교원으로 간주되었다. 정규의 양성과정만으로는 부족한 교원수요를 채울 수 없어 지속적으로 단기의 양성과정들이 개설되었으며, 이를 통해 교원으로 양성·배출된 이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낮은 자격과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해방 이전의 사범학교체제는 근대 일본의 국가 주도적인 폐쇄형 양성과정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졌던 대개의 교육에 대해서는 극히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유독 사범학교교육에 대해서만큼은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관립한성사범학교나 경성사범학교 등 식민지시기의 사범교육은 높은 수준의 학교 설비를 갖추고 안정적인 양질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관립으로 운영되었던 사범학교는 관비로 지급되는 수업료 및 기숙사비의 혜택이 있었고 졸업 후에는 교원으로 취업이 보장되면서, 당시 학비 부담이 컸던 학생들에게 커다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이처럼 관립의 사범학교는 우수한 자질의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또 당국의 지원을 받아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부터 식민지시기의 사범학교는 매우 성공적인 교원양성제도로서 높게 평가되었고, 해방 후 새롭게 수립된 교원양성제도 또한 강력한 국가 주도형 교원양성모델이었던 식민지시기의 사범학교체제와 유사한 골격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우리의 사범교육의 역사에서 폐쇄적인 양성체제는, 초등교원 양성의 경우, 관립 이외에 사립의 사범학교 설립이 법적으로 배제된 통감부시기 이래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돼 오고 있다. 중등교원 양성의 경우는, 1950년대 약간의 수정이 가해지긴 하였지만, 최근까지도 폐쇄형 양성체제를 골간으로 하고 있었다. 1990년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에게 주어졌던 우선임용제도가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러한 폐쇄형 양성체제에 대해서는 폭넓은 지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 하나 우리의 사범교육 변천사에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의 양성과정이 학제상 각기 다른 수준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해당 교원이 어떠한 이수과정을 마쳤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교원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식민지시기 중등교원은 별도의 양성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학교 이상의 졸업자가 그 자격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초등교원의 경우에는, 같은 사범학교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졸업한 학교에 따라 인정되는 자격이 달랐다. 교원의 자격을 구분하는 기준은 교원이 되기 위해 얼마만큼의 수학연한이 있었는가, 그리고 정규의 양성과정을 이수하였는가의 여부에만 달려 있었다. 이러한 구별법은 교원이 무엇을 하는가에 주목하기 보다는 교원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에 주목한 결과이기도 했다. 아울러 여기에는 위에서 아래까지 질서정연한 하나의 직급 질서로 형성된 국가적인 관료등급제 안으로 학교 사회가 편입된 영향도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 관료등급제는 처음부터 부임자의 학업이력 혹은 졸업한 학교 수준에 대응하도록

구안된 것이었다. 그런데 초등교원과 중등교원 양성과정에 학제상의 차이를 두는 이러한 경향은 해방 이후 새롭게 교원양성교육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오히려 법적으로 제도화되고 고착화되고 있다. 중등교원은 대학 수준에서 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범대학을 새롭게 설립하면서, 초등교원은 중등학교 수준의 사범학교에서 양성하도록 제도화되었던 것이다. 심지어 사범대학 내에서도 학제를 달리하고 교과과정에 차등을 두어 중학교 교원과 고등학교 교원을 구분해서 양성하기도 하였다.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학교가 점차 대학수준으로 승격되어 4년제 교육대학교로 정비되는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완료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사범교육이 변화해온 역사를 살펴보면 그 연속성을 찾기가 어려울 만큼의 전면적인 변화들이 이어져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 현실 앞에서 굳이 연속성을 찾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하나의 제도가 “왜” 하필이면 “그 때” 수립되고 혹은 폐지되었는가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는 일이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역사적인 변화의 동기가 우리 내부로부터 나오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입되었던 식민지시기의 경험은 민주적 의사결정의 공론장을 만들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역사적 식민성을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적어도 우리의 교육정책이 조령모개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위해서라도, 또 어떤 정책에 대한 논의가 아무런 전제도 없이 무에서부터 재차 논의되는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로 한국의 근대적 사범교육 110주년을 기념하였고, 올해는 사범대학 창립 60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연원을 찾아 효시를 구하고 또 전통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현재적인 좌표를 설정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된다. 근대적 사범교육의 기원을 확정하는 일이나, 나아가서는 사범대학의 창립 기념일조차 그 역사적 연원과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연구들은 향후에도 더욱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사범교육의 전통이 비단 숫자가 주는 후광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더구나 무수한 법령들과 규정집의 두께로 가늠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효시를 기념하는 것에 더하여 역사 속에 흔적으로 이어져온 사범교육현장의 작은 실천들, 거기에 투사되었을 영광과 좌절들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고 싶다. 이러한 문제 역시 짧은 글 안에 담지 못하고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명숙(2002). 미군정기 고등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경북대학교20년사편찬위원회(1972). 경북대학교 20년사
-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1973). 구한국외교관계문서. 統緒日記
- 교육부(1998). 교육50년사
- 공주사범대학35년사편찬위원회(1983). 공주사범대학35년사
- 구한국관보(1895.3.25 / 4.19 / 5.7)
- 김기석(2001). 일란성 쌍생아의 탄생. 교육과학사
- 김성학(1996). 서구교육학 도입과정연구(1895-1945).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우(1987). 한국근대교원교육사1. 정민사
- 김영우(1989). 한국중등교원양성교육사. 교육과학사
- 김종철(1989). 한국교육정책연구. 교육과학사
- 김종철 외(1989). 한국 고등교육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김창제(1933). 한성사범학교시대. 신동아 1933년 3월호
- 김창제(1936). 30년전 학교와 학생기풍. 신동아 1936년 1월호
- 노인화(1988). 대한제국 시기 관립학교 교육의 성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대한교원공제회 교원복지신보사 편(1996). 광복교육 50년
- 동아일보(1945.12.14 / 1946.5.21 / 1948.5.21)
- 매일신보(1945.9.31)
- 목포대학교(2000). 목포대학교 50년사
- 문교부(1946). 문교행정개황
- 문교부(1988). 문교40년사
- 박수정(2003). 한국 사범대학 제도의 형성.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0권 제1호. 135-157
- 박진동(2004). 한국의 교원양성체계의 수립과 국사교육의 신구성: 1945~1954.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울대학교기록관(2004). 서울대 역사 되돌아보기. 서울대학교기록관 학술회의
- 서울대학교도서관(1991). 議案·勅令(上)
- 서울대학교사범대학삼십년사편찬위원회(1975). 민주교육의 요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삼십년사
- 서울대학교사범대학오십년사편찬위원회(1996).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오십년사

- 송병기 외 편(1970). **한말근대법령자료집**
- 阿部洋 외(1987). **해방후 한국의 교육개혁**. 한국연구원
- 안홍선(2004). **경성사범학교의 교원양성교육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길상·오만석 편(1997). **한국교육사료집성: 미군정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임후남(2002). **대한제국기 초등교원의 양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자유신문(1945.12.7)
- 정태수 편(1992). **미군정기 한국교육사료집성(상,하)**. 홍지원
- 조선일보(1946.3.8)
- 한국교육개발원(1988), **한국 근대교육 100년사 연구(3): 해방이후의 학교교육,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사교 편(1999).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50년 구술사 자료집(1)**
- 한국교육십년사간행위원회(1959). **한국교육십년사**
- 한국학문헌연구소 편(1984). **박정양전집**
- 高橋濱吉(1927). **朝鮮教育史考**
- 教育史編纂會 編(1939). **明治以降教育制度發達史**
- 教育時論**(第344號, 第345號, 1894; 第363號, 第364號, 1895)
- 東京韓國研究院(1978). **韓 第7卷 第9・10號**
- 朝鮮總督府學務局(1928, 1942). **朝鮮諸學校一覽**
- 學部(1909). **韓國教育の既往及現在**
- 學部(1910). **韓國教育**
- Gifford, D. L.(1896). Education in the capital of Korea. *The Korean Repository Vol.3 No.6*
- Our Schools(1898). *The Korean Repository Vol.5 No.10*

* 논문접수 2006년 11월 20일 / 1차 심사 2006년 11월 28일 / 2차 심사 2006년 12월 14일

* 우용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 「조선후기 교육개혁론연구」(1999), 「근대한국 초등교육연구」(1997, 공저) 등이 있다.

* e-mail: wyj@snu.ac.kr

* 안홍선: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경성사범학교의 교원양성교육연구」(2004) 등이 있다.

*e-mail: sanae2@snu.ac.kr

Abstract

Teacher Training System from the Hanseong Normal School to the College of Educ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Woo, Yong Je* · Ahn, Hong Seon*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 between the teacher training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olleges of education in the historical perspective in modern Korea.

The modern teacher education started from the Hanseong Normal School in 1895. The normal school system was set as a dominant course to cultivate qualified teachers in the colonial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Under the military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the teacher training system was divided into two types, the colleges of education and the normal schools. The establishment of the College of Educ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was a symbol of the new system. Considering the fundamental changes of teacher training system at about the time of the Liberation,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institutional continuity between the two systems. However, the positive evaluation of the colonial teacher training system was useful resource to construct the new one in spite of the official rejection of colonial influence in designing a new educational system after the Liberation.

The teacher training system in the all periods of modern Korea was maintained as a closed system controlled by government. Until th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imperialism, the normal schools were maintained effectively in cultivating qualified teachers as the only and the best official courses of training teachers. The effectiveness of them was highly estimated in the late 1940s by the education reformers, who came to decide to construct a similar closed system. The new teacher training system was structured as the dual and hierarchical system: one for middle-school teacher training at the level of higher education and the other for

* Seoul National University

elementary-school teacher training at the level of secondary education.

Key words: teacher training system, teacher certification, normal school, college of education, coloni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